

이 당은 이 묵실을
체암 설촌헌 홍좌수가
설립하였수다.
홍좌수가 두린 때로부터
원체 우김이 씨고
결죽헌 양반이랴는디
장성하여서는 지주목스광도
우김을 곱이 훈
어룬이랴수다.
홍좌수가 흐르 밤인
꿈을 보왔는디,
백발노인이 나타나서
“나는 이 묵실을 지키는
송씨영감인디
내 좌정처를 정하여
위하여시민
알을 도리가 실거라.”
하여 두언
어디로산디 가불엿수다.
글지후제 홍좌수가
묵실에 모듬을 하고
이 스실을 알려
당집을 무언 송씨영감을
위하게 되었수다.
홍좌수가 잘 살아가난
해뻔 사름들이
홍좌술 엿이대기기로
피를 내는 판이랴는디.

그 날 밤 홍좌수 꿈에
백발노인 송씨영감이
나타나고 말을 하되,
“아무날 아무시로
스고전맹이 매길 거매
아맹아맹 하민
알을 도리가 실거라.” 하연,
붉는날은 홍좌수가
제주목스안티 간 말을 하고
스령 예실굽을 빌언 간
예방을 하난
그만 스경을 멘하게 되었수다.
홍좌수는 믋실 토주관으로 신
송씨영감의 은덕을 멩심하연
본향을 잘 위하고
므실에서도 즈손들이 불어났수다.
이 본향에 강 제를
지낼 땐 홍좌수도
거늘리곡 흡네다.

제일, 즈손에 생기 맞은 날.

<애월면 신엄리 남무 42세 양태옥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.606.